大動亂의前提

O

◆ 南原 公普運動 南原公立 普通學校の分に去八日上午九時 書通學校の分に去八日上午九時 中餘種 音順 健 奇 災 一 八 四 四 中 で 八 山 人 海 の 観 市 の 八 山 人 海 の 別 を 一 八 四 日 中 四 日 全 競 走 가 り 人 の り 次 と 可 氏 石 及 賞品 と 如 左 一 人 の り 次 と 可 氏 石 及 賞品 と 如 左 一 人 の り 次 と 可 氏 石 及 賞品 と 如 左 一

平康市擴張案

二十八日創立紀念說質養

The Korea Daily News.

Seoul, Korea, Wednesday, Nov. 11th, 1925. Do the duty that lies nearest thee, which thou knowest to be a duty! The second duty will already become clearer. ----Carlyle. THE QUEER GLADIATOR.

from Fairy Tales of Many Countries.

In the ancient Kingdom of Korea there was a monarch, who was very fond of witnessing the performances of acrobats, wrestlers, gladiators, and other prize-fighters. He kept a great many of these men, paying them large sums of money, and training them from time to time under his own personal care. Some, who were considered the strongest and the cleverest, belonged to what was called the First Brigade. Others, slightly inferior to them in strength and skill, were counted men of the Second. All other men, who had the ambition to perform, but had neither the physical energy nor the training required for it, came under the Third; and the King gave them a pittance from time to time, rewarding thereby, as he said, their inclination to distinguish themselves rather than their intrinsic merit in that respect.

His Majesty was also fond of such men as made him laugh constantly "He that makes me laugh," sasd the King, "shall have a high reward, however insignificant his pains may be." Hence, all the wits and wags, humouriss and harlequins, mimics and motley fools, and a great many others of that populous brotherhood known as the laughing and the larghter-making tribe, congregated at the Court of his Majesty, and often drove him to the necessity of holding his ribs very tightly. Of these, there was one who was as remarkable for his madcap tricks as he was amall and ugly in size. The King called him Caterpillar, because, as his Majesty observed, he spun out the threads of his wit and humour even as that worm spun out

threads of silk in one of its progressive 妙 한 劍 答 (一)

理里少年會創立 別に明コ任員可討議事項の加左 別に明コ任員可討議事項の加左 では同コ任員可討議事項の加左

新部語氏可談心多力平面 水十二日 外界年會の分に同會復

全北記者團 委員會討議事項 全北記者團列州完去八日午 全北記者團列州完去八日午 全北記者團列州完去八日午 本國事務所刊分全州、群山公 作第六回月例會臺開催計五 時 行張况報告外实他路般事項

人以内)

는

人

Ξ

商豆豆

申込場所 競技種目 参加團體 申塲日

能平 期日所時 夓 府 麗 季秋 後二 4 前 夕 堪 畤 東九 正日

局支三鲜朝、亞東、代時で

馬氏의 急電에 依み・
北京州田野)北京列祖社國民軍首領の日七日夜馮玉祥氏의念社京十日愛)北京列祖社國民軍首領の日七日夜馮玉祥氏의念社・京十日愛)北京列祖社國民軍首領の日七日夜馮玉祥氏의念教後俄然可秘密會議会開かり豆決定知めて日本の一般社会の東天軍の日子が中では、「大の東天軍の日子が中では、「大の東天軍の日子が中では、「大の東天軍の日子が中では、「大の東大町の日子が中では、「大の東大町の日子が中では、「大の東西の日本の一大の東京の日本の一大の日本の一大の東京の日本の一大の東京の日本の一大の東京の日本の一大の東京の日本の一大の東京の日本の一大の東京の日本の一大の東京の「大の東京」の「大の「大の「大の「大の「大の「大の「大の「大の「大の「大の「大の」」」の「大の「大の」」」の「大の「大の」」の「大の」は、「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の」の「大

七金光洙 道金萬德

大田配達組合
来十五日創立
忠南大田のシ十一個의各新聞支
局三十餘名의配漢夫가り公斗親
局三十餘名의配漢夫가り公斗親
別草案及諸般準備置叶計の來十
五日午後七時大田朝鮮日報支局
いの分割立總會臺開催한다리中
いの分割立總會臺開催한다리中
(大田)

馬山刑務所列馬山刑務所列上時記中四人長到汗의結晶品別製市の計四人長到汗의結晶品別製市の計四人長到汗의結晶品別製品の記事が、日本語の一人長到汗의結晶品別製品の記事が、日本語のでは、日本語のは、日本語

申申參

所限金

支外

電 中 表 八 日 記 年 宝 の 會 で 例 會 密 下 の 會

「慶州」 慶州郡縣の 外に古蹟中唯一 三有名的中月城市的 七千圓 多東 寺 回 の 月四十餘 4 落め 公園 多建 7 馬 市 の 分 七番 園 多 東 奇 立 所 中 の 分 七番 直 の か り 一 で あ の か と 個 人 所 有 ご い い か と 個 人 所 有 ご い い か と 個 人 所 有 ご い い か と 個 人 所 有 ご い い か と の し か ?

来場郡主催三密陽境内潤潤及 対三四三點總子八七點燒消三點 が三四三點總子八七點燒消三點 が三四三點總子八七點燒消三點 が三四三點總子八七點燒消三點 が三四三點總子八七點燒消三點

り 徳川郡沙屯市 京城申宇均氏八市 日本の中日 本

赤赤数三市白白数

東東美塾工

文を表現後かは同意幹部一同の ・ 本語のでは、 ・ 本語のでは、

一面長等斗共が對岸大同江面飛行場方面의實地調査量行がやと呼更が普通江方面의調査量達社後のと総督府の對から行正區域擴列申請。4年月末項の提出を行います(平区)

田島 總收穫豫想可 約二百卅萬石 到間島最作品近年稀有의大 計計中大體某產出豫想高之左

の二等の異策均君の一個試合

在全景量剛光 完全景量剛光 一种 (密線)

峴驛倉庫

에

米車券의盗難

甘の心であれる正かないる

記者大會

達城에

食刀强盜

位の知らび世上不

커빈날 그녀자의집에서 국자한 달은 되 연설 것인데 1 신공작이 라고의일을 맞나보안네 아마한 미설정군이 공작의이다가는소리로 마찬반당나보안네의 교설정군이 공작의이야기를 박 군에게 쓰내이는것은 박군의를 박 금을을려주는것이 분명하니 마도

자지고 차를 달라는것을

학남건물제를 동일키위하여 얼마찬이 준비위원까지 선명하여 보기회를개 보기회를개 보기회를개 보기회를개 보기회를개 보기회를개 보기회를개 보기회를개 보기회를개 보다하며

사용하는 잉크가만히들어 (습으로 더욱이이상하게 되 당시에 동역구내에있는 공 다시 아니나 말을가 그참고 아시하였는 승차권 (乘車 사태장가격일만원과 신호기 오라(打)승사원 제복기라

京城府内의

戶數移動

지나간철일밤3일두시경에전복일 청군수청면산격등 (灌城郡麓城 의 이용기를가진 강도두명이 드린 외쉬 집합사람을 강달하여가지고 다 라나는데 이급보물으로 대구 다 감가서 진제만을느리고 대활동 기업가서 진제만을느리고 대활동 기업가서 진제만을느리고 대활동 기업가서 진제만을느리고 대활동 기업가서 진제만을느리고 대활동

변환 형제이 있습으로 계속 등이 따또 BSAL(永宗島)에 대한 BSAL(永宗島)에 대한 BSAL(永宗島)에

압한로는함이피게되는

수권만(歐洲殿亂) 이후로 외에 조치호 발표에 이후 주리진外 의 라객(旅客)이 주리진外 는 식당(食堂)에 유악(音樂) 시설는 대깃축을하아 소극책 시설는 대깃축을하아 수입된다.

단問를조직하

of

朝鮮玄型의今後

郡金川面院谷里)이단만질(伊丹 萬吉)의장실(豫室)이단만질(伊丹 어명한장실인데지난이월오랜드 시장에 장실커편의로부터,돌면 한국일데을 권소하얏는데 손해 는 건물사원원 참구이원원기 간물과 한양다하며 원인에대하야는 방 화라는말도엣스나면의(耀火)인 지도알수업서목하징(烟火)인 江邊外棄兒屍 정북질 자군약목면당산리 (吳北溪谷郡 공군약목면당산리 (吳北溪谷郡 의동미사람이 발견하얏니데 소 한정보세에 서는병인수색에 노력 중이라더라(약목) 安東女性의 中日中(中주)

金美哉 李基賢

金浦酒店≅窃盗 在 全容点 韓良淑 金容点 韓良淑 金容点 韓良淑

지급 연하라 바로발을하지나는 지급 연하라는병에 결리성네 살 고위도못하게 쏵봇들렛네』 나는위로하는말로 『취취그런면 봇대를드는바에 바라는 한손이로 머리를 건가

에 그린데이상스러운것이 자비에 그린데이상스러운 가리하게되어 되었다.

도 이 그리는 이 그리는 이 그리다가 말을 하면 다 그리다가 말을 하면 이 있는 조를 자리 가 다 그리지 아니 할 라이지 공이를 다 가 다 그리다가 말을 하면 하나 할 때 그리다가 말을 들 먹듯하며 되는 이 또 차다 나면 거 될 하기도 나를 하기도 나를 하기도 나를 하기도 나를 하기도 나를 하기도 하게 되었다면 가 되었다면

지 시 의 이 동이 만타 원 경청부에서 묘사한바에 의하면 보 실월증시내호수(月數)는딸만이 보 한배가십구성인데 그중 시외 로부터시내로이동(移動)되호수

손해칠천원 □、我等○現下經濟的解放運動

羅州蠶室全燒

一、我等oD女性解放運動可光開

지금은 그용작이 파리네어업지

한이라는 되자는 피부요부자요 티크리를였아니라 허용이 가득한 면되자이다 그래서 난편을구하 라야 만족할만치되었는데 그용 작으로구왕의이복동생이었으로 일개서생인박군이감하지누어나 무한한 동정을주었다 그래서 내 무한한 동정을주었다 그래서 내

産運動の

이소분이 계상대원화되다 군에게대하아 해결또하다 대원화대

자기들은 대장실망하다 바탕 자기들은 대장실망하고 위험 다이자실망하다 위험

악디

아이러나 나장도 정도 나를 본

본래향촌모부인의귀한아 하고 즉시 경청에올라가서 하고 즉시 경청에올라가서 학교에 인화하였다가 닷을 전성 예그한청년이입 장나고그와가리문데가되 분을 이르겠은 무슨될인 그것은 그쳤던의 과거와 그것은 그쳤던의 과거와

그는 세상형면을 알지못하였는 지원교부모의 명정의는지 살인 함)가일어나자 악디주의인회(小作人 함)가일어나자 악디주의간사유 어디 그렇게 고청단인가면이어 우다 그렇게 고청단인가면이어 가다고의 교임에 따취되야지의 소유토디의

지며 손들잡고 안될을 가리하다 중동으로잡시그와 기를 생겨다가 되하기를 또속하하지나 아니힐는지 역시 보장하기는어 려우나 역하간그의행동으를 올라 못 사랑마다이야기거리가 되는 동시에 일종사상진의 자료거리 가되앗다더라(동산)

会

보지국에서 가실하고 제반준비 이 마보도한비 어니와 그동안 보지국에서 가실하고 제반준비 이 마시 준비원회를 하당동아의 보지국에서 가실하고 제반준비 이 마시 한 사건을질덩하면스며 대 이 마시 한 사건을질덩하면스며 대 기가자격은 조선당 한 후동면역구(東 명) 등 한 후동면역구(東 대신) 이 나가 하나 전의로 영하 고대회장소는 한 한 후동면역구(東 대신) 이 나가 하나 전의로 영하 고대회장소는 하나 한 후동이어의 사건의로 한 가급은 오십 가 자격은 조선 당하기를 바란다 더라 이 보기구입자가 한 후동이지 취 대신 전 기 기를 바란다 더라 (한 후) 다 주교정년회종교부에서는십일일 가 (수요일)하오일곱시에 아래와 가를명대와 명사로 괴도히를개 최하리라고

◇訂正 去七日附本報號外『漫 ・ 会」の実施の「別名の訂正な」 ・ 会」の「実施」の「写本」」の「引 ・ 会」の「実施」の「別名の訂正な」

그마도향이라는 너자는 유명한 이 기마도향이라는 너자는 유명한 선수 그래서 생각 그림자가 어의보가 본제고 함께 고무렇더니 피군은 사슬도을한 주먹으내여들고 젱그렇 젱그렇 된고말대답 등성접게한다 그린데여보게 박군을 바라 보고말대답 등성접게한다 지 [자하 그러라 예기이사라] 대 좀가만이앗게 제발들리지말

전 각종실사가 달로늘어가서 일반 이 전경을다하여 가는 경찰의대도를 어가서 일반 이 전경을다하여 사는 경찰의대도를 주목 이 시의 말을 들다가 다 나도 맛나 되었다. 그 나도 맛나 나도 맛나 나도 맛나 나도 맛나 나도 맛나 나는데 어어 가지의보급에 취하이다고 다 되었다. 그 나도 맛나는데 무섭 되지 그리다 나는데 무섭 된 사이를 보고 있다. 그 나도 맛나는데 무섭 된 사이를 보고 있다. 그 나도 맛나는데 무섭 되지 않아 다는데 무섭 되지 않아 나는데 무섭 되었다.